

## Invitation from Pacific-Rim and Asian Solidarity,

March 11, 2011 was the day when the most far-east part of East Asia was hit by a triple disaster of earthquake, tsunami, and a nuclear plant explosion. Specifically, the extent of the damage and danger resulting from the nuclear plant explosion is becoming increasingly apparent.

In the midst of this catastrophe, however, we have seen the work of God. People have come together and carried out acts of love that transcend borders, denominations, and at times, even faiths. A network of churches throughout the vast affected region was developed. We, Tohoku HELP, have a leading role to serve the network.

Together with participants from Aotearoa New Zealand, Korea, Taiwan, and Japan, as well as with people from other religions, we will hold morning and evening prayer services and daytime forums. We look forward to you joining us.

## 아시아 · 환태평양 연대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지진과 쓰나미와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사고라는 삼중의 재해가, 동아시아의 동쪽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사고는 지금, 그 피해의 거대함이 점점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참혹 속에서,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국경을 넘어 교파를 넘어, 때로는 종교의 벽을 넘어서, 사람들은 연대하고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피해를 중심으로 교회 네트워크가 생겼습니다. 우리들의 동북헬프는 이 네트워크를 위하여 봉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국·대만·뉴질랜드 그리고 일본 그리스도인과 힘을 합하여, 또, 다른종교자들과 협력하여, 아침과저녁에는 기도회를 열고, 점심에는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Per crucem ad lucem  
tohokuhelp.com